

# BDI 정책포커스

## 지자체 주도 인재양성, 위기의 지역대학 돌파구

- I. 대학 인재양성 체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 II. 부산지역 대학 입학자 및 취업 현황
- III. 지자체 주도 대학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부산연구원  
홈페이지



요 약

- 부산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및 취업률이 감소하면서 인재양성 기반이 약화
  - 지역 인적자원 부족은 장기적 지역경제 성장 저하,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기업의 지방 투자 감소 등을 초래
  
-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교육 혁신을 강조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추진
  - RISE는 대학지원사업 수행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해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지자체 중심의 대학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
  - 지역 거점 대학인 ‘글로벌 대학’ 육성 지원을 추진
  
- RISE 및 부산시 인재양성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 대학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

**대학 입학 및 취업 위기**

- 대학 신입생 충원을 및 입학자 수 감소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 심화
-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감소



**지역 주도 대학 인재양성**

1. RISE 시행에 맞춰 ‘부산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2. 부산시 인재양성 사업을 RISE와 통합
3. 지역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대학원 인재양성
4.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확대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5. 지자체와 대학의 대학생 창업 수요 공동 대응

## I

## 대학 인재양성 체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 1 부산지역 대학 입학생 감소

- 부산지역 대학의 신입생 총원율이 감소하고 청년층 인재 유출이 심화하는 등 인적자원이 감소
  - 인적자원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쇠퇴를 가져오므로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가 중요
-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크게 낮은 수준으로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명(16위)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 자원 약화가 가속화할 전망
    - 합계출산율은 1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
  - 하지만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 학생 유입이 많은데, 2022년 서울 일반대학 입학생 중 서울 외 고교 출신 비중은 67.4%(대학알리미 공시자료)
  - 부산은 서울에 비해 타 지역 비중이 낮음(2021년 기준 부산대의 부산 외 고교 출신 비중은 56.0%, 부경대는 51.7%, 한국해양대는 58.7%)

## 〈지방대 폐교, 지역 소멸...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은 모두 18곳으로 1곳을 빼고는 모두 비수도권
  - 2022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도 18곳 중 14곳이 비수도권
- 자료 : KBS, 2021.06.28.

## 〈합계출산율 및 학제별 입학자 비중〉

연도	부산				서울			
	합계출산율	전문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원	합계출산율	전문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원
2022	0.72%	5.9%	9.0%	7.3%	0.59%	11.1%	25.8%	42.7%
2015	1.14%	7.3%	9.4%	7.9%	1.00%	8.9%	23.5%	43.6%
'22-'15	-0.42%p	-1.4%p	-0.4%p	-0.6%p	-0.41%p	2.2%p	2.3%p	-0.9%p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2년 합계출산율은 잠정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전국 학제별 대학 입학자 중 부산지역 대학 입학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울은 증가
  - 2015년 대비 2022년 전국의 학제별 대학 입학자 중 부산지역 입학자 비중을 보면 전문대학 1.4%p, 일반대학 0.4%p 감소
  - 반면 서울지역 대학 입학자 비중은 2015년 대비 2022년 전문대학 2.2%p, 일반대학 2.3%p 증가

## 2 인적자원 부족으로 지역경제 여건 악화

- 지역 인적자원 부족은 장기적 경제성장 저하,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지방 투자 감소 등을 초래

### 〈지역 인적자원 부족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구분	내용
장기적 경제성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자원은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향상</li> <li>평균적으로 고학력 인적자원일수록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li> </ul>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 산업혁명 등 혁신이 진행되면서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력 필요성이 확대</li> <li>고학력자 및 연구개발 인력 부족은 산업 구성 불균형 →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짐</li> </ul>
기업의 지방투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지방투자 애로사항 중 근로자 이탈 및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1위, 32.7%),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인력 부족(3위, 17.8%) 등 인력 확보 문제가 50.5%를 차지</li> <li>지방 투자 이후 투자지역 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비중은 관리직 85.0%, 연구개발직 57.6%, 영업판매직 54.4%, 단순생산직 84.8%로 기업의 지방 투자는 지역의 고용 향상에 기여</li> <li>2021년 기준 부산 소재 매출액 1,000대 기업은 27개로 서울(529개)에 비해 크게 부족</li> </ul>

자료: 이종화(2016), 김시원·김지은(2022), 김지수 외(2021), 부산상공회의소(2022)

## 3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 최근 정부는 지역 주도 대학 인재양성 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 중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추진(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023)
  - 2023~2024년 RISE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지자체 중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
  -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5조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해 지역대학 여건 개선과 대학 혁신 촉진에 사용
- 부산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시작
  - 정부 재정사업의 기획·평가·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 산업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부산시 보도자료, 2023.03.08.)
  - 2025년부터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RISE로 통합될 예정
    - 대학재정지원사업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지방대 활성화 사업
- 지역 거점 대학인 ‘글로벌 대학’ 육성을 지원(관계부처 합동, 2023)
  - 글로벌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분야에 세계적인



- 대학으로,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등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여 곳을 선정할 예정
-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글로벌 대학에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맞춤형 규제 특례 및 세제 지원도 제공할 예정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자료: 교육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보도자료, 2023.02.01.

〈RISE 통합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부산 시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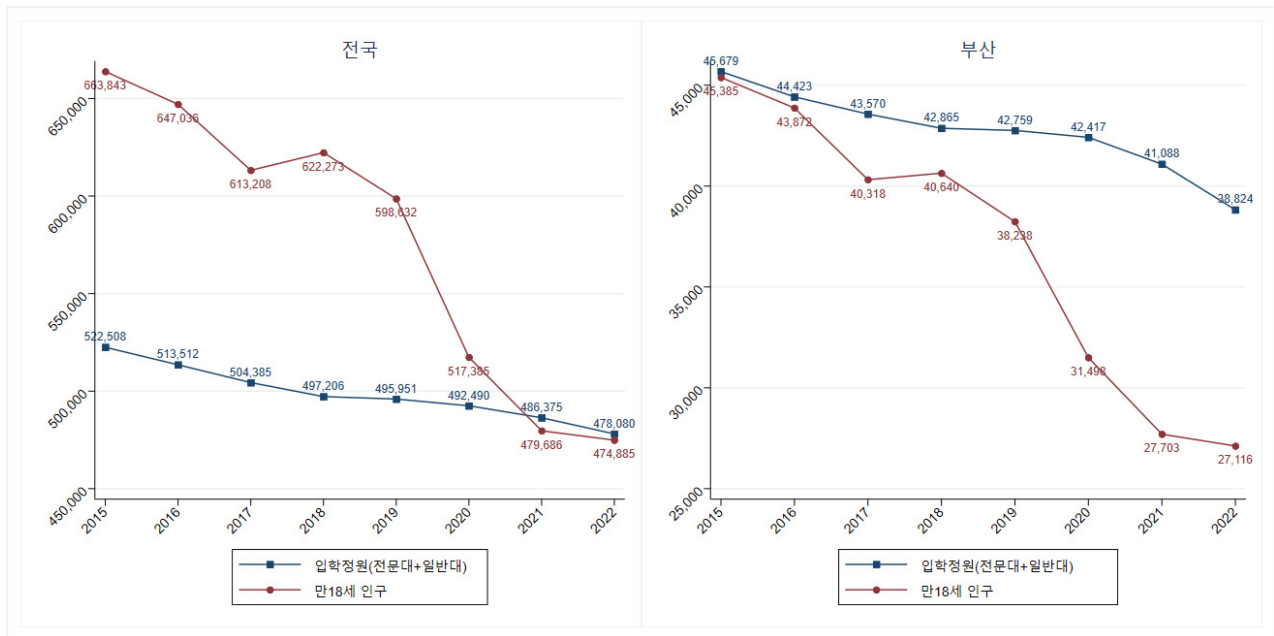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지역이 강점을 갖는 산업의 인재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양성하고 다수의 대학으로 구성된 지역혁신 플랫폼을 운영</li> <li>• 부산은 올해 RIS 사업에 선정됐으며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등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지역혁신 인재육성계획을 발표</li> </ul>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분야 인력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 및 직업교육을 강화</li> <li>• 부산은 2개 컨소시엄이 존재(경남정보대와 사상구 컨소시엄은 스마트 산업도시, 친환경 생태·복지도시를 특화분야로 선정했고, 부산경상대와 연제구 컨소시엄은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야, 디지털 공공서비스 분야, 웹툰애니메이션 분야를 선정해 전문인력을 양성)</li> </ul>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LINC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의 기술혁신 주도, 미래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산학협력 기반 조성 등을 지원</li> <li>• 부산대 등 다수의 대학이 선정되어 미래 신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파워반도체 인재양성 공유대학' 운영 등</li> </ul>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 취득 및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 지원</li> <li>• 부산권 일반대학 4곳(동명대, 동서대, 부경대, 영산대)에서 상담, 경영, 심리, 복지, 공학 등 특정 학과로 이뤄진 단과대학 등을 설립해 일과 학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li> </ul>
지방대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사립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화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설계 및 운영을 지원</li> <li>• 신설</li> </ul>

# II 부산지역 대학 입학자 및 취업 현황

## I 입학가능자원 및 입학정원 추이

- 부산지역의 대학 입학가능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
  - 전국적으로 입학가능자원인 만 18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1년부터 만 18세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못 미치는 역전 현상이 발생
    - 입학정원은 전문대와 일반대 기준으로, 산업·기능·교육·방송통신대학·기술·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이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 때문
  - 부산은 2015년 이후 입학정원에 비해 만18세 인구의 부족 현상이 심화돼 2022년에 입학정원에 비해 11,708명의 입학가능자원이 부족

〈입학가능자원 및 입학정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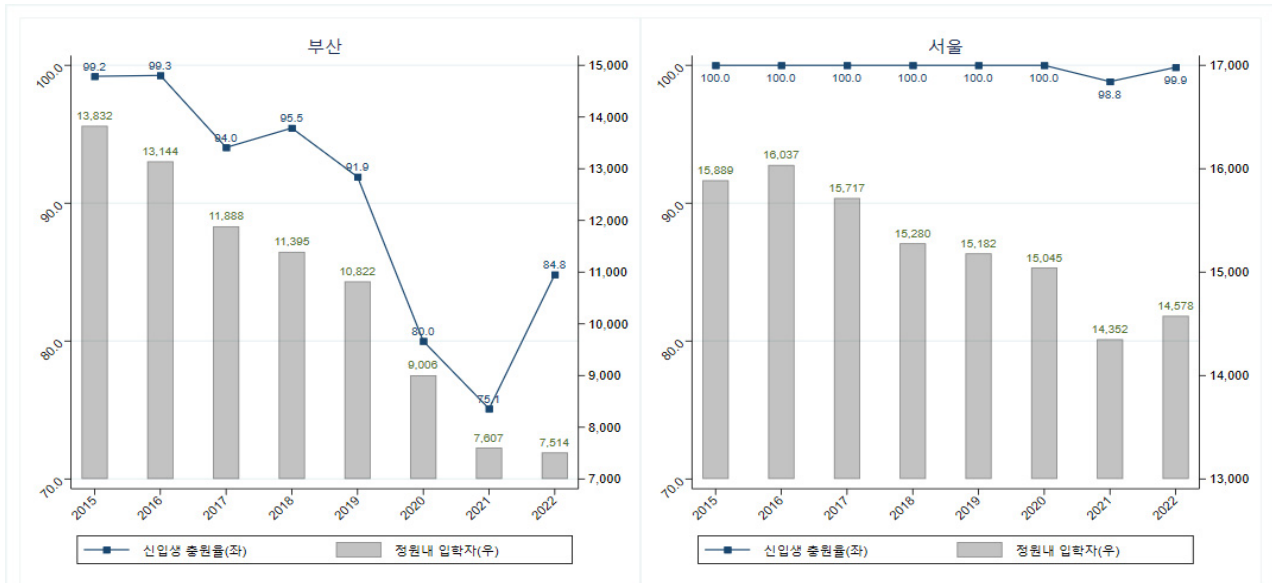
주: 입학정원은 해당연도 상반기(4월 1일) 기준 전문대와 일반대 정원의 합이며 정원내/외 입학정원을 모두 포함. 산업·기능·교육·방송통신대학·기술·사이버대학 등을 제외한 수치. 만18세 인구는 2020년까지는 확정 인구, 2021~2022년은 중위추계(기본추계) 인구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통계청 추계인구

## 2 학제별 신입생 충원율 및 입학생 추이

- 부산의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지속 감소한 반면 서울의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약 100%를 유지했고 입학자 수는 2015년 대비 2022년 부산 45.7%, 서울 8.3% 감소
  - 부산의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 99.2%에서 2022년 84.8%로 급격 감소한 것과 달리 서울은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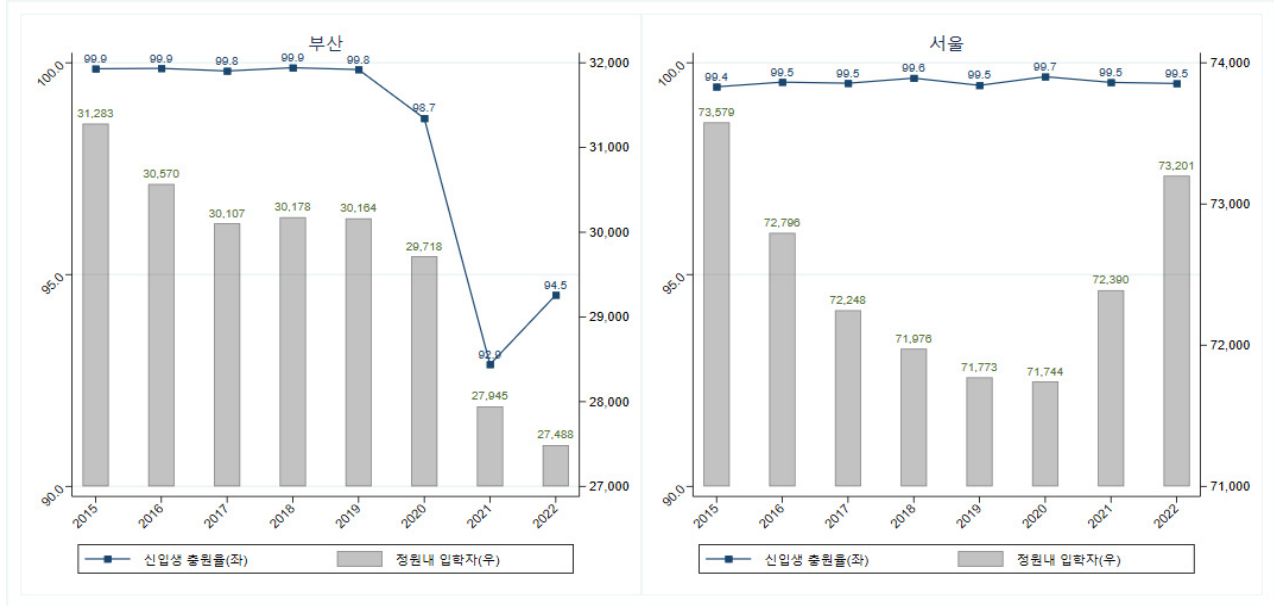


주: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입학자 수/정원 내 모집인원)\*100, 입학자와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상반기(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2020년부터 부산의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한 반면 서울의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약 100%를 유지했고 입학자 수는 2015년 대비 2022년 부산이 12.1% 감소한 반면 서울은 0.5% 감소
  - 부산의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다소 반등했으나 입학자 수는 함께 증가하지 않아 모집인원 감소로 인한 현상임을 보여줌
- 이 같은 부산 전문대, 일반대의 신입생 충원율 및 입학자 감소 원인으로 1)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2)수도권 인구 집중, 3)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4)대학정원감축 자율화 등이 꼽힘(권오혁 외, 2021; 강경중 외, 2022)
- 부산의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저조한 반면 서울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최근 90% 수준을 회복했고 입학자 수는 2015년 대비 2022년 부산 7.9%, 서울 1.8% 감소
- 최근(2021~2022) 일반대학원 입학자 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유학 감소(외교부, 2021), 고학력 인력 수요 증가(장광남 외, 2022)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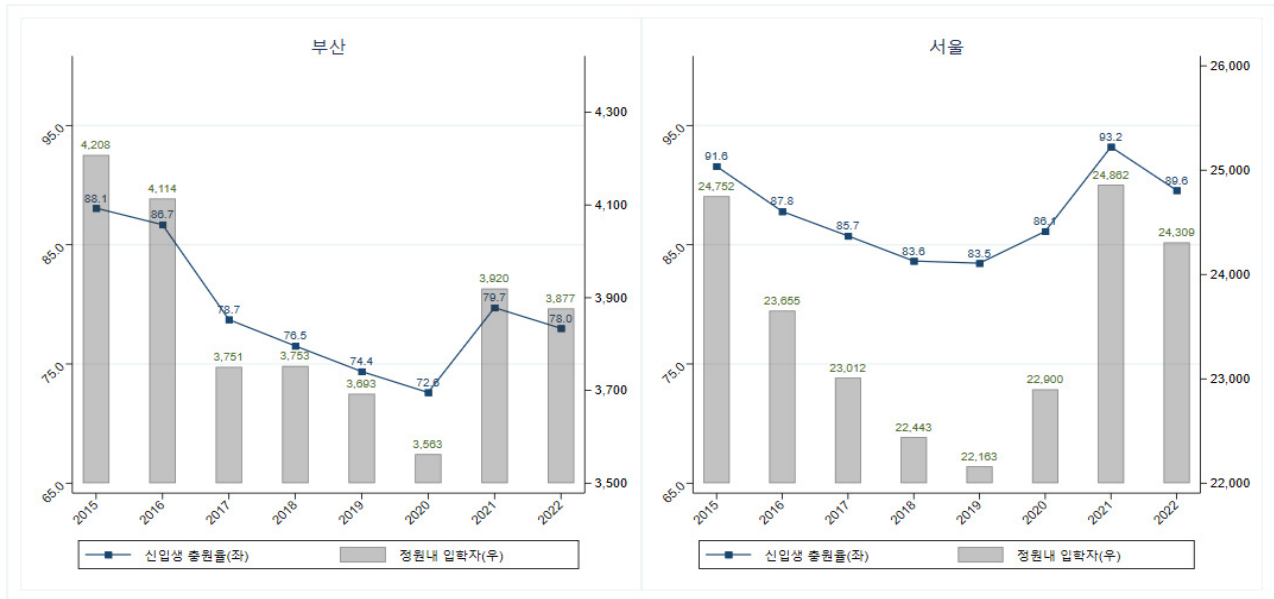
- 2019~2020년 대비 2021~2022년 일반대학원 입학자 수는 부산 7.5%, 서울 9.1% 증가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 추이〉



주: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100, 입학자와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상반기(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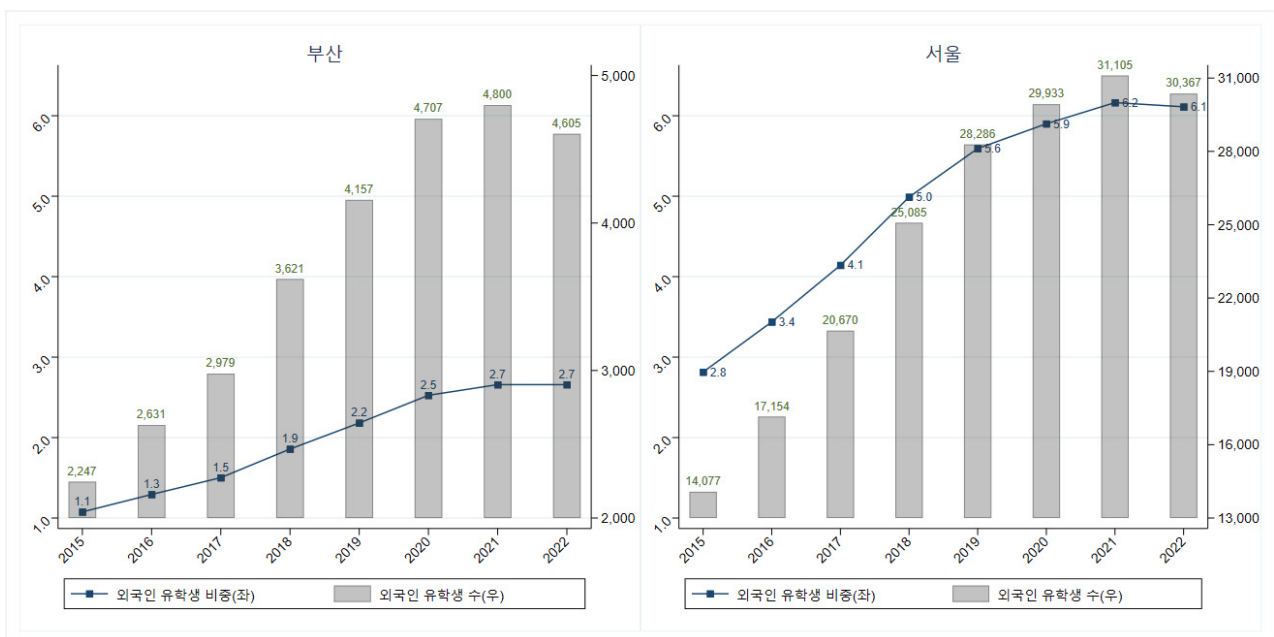


주: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입학자수/입학정원)\*100, 대학원은 모집인원을 조사하지 않아 입학정원으로 산출. 입학자와 입학정원은 해당연도 상반기(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3 외국인 유학생 추이

- 일반대 외국인 유학생은 대체로 증가 추세이나 최근 증가세가 완화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이며 최근 팬데믹 완화 이후 유학생 입국이 늘고 있어 향후 추이 파악이 필요
  - 2015년 대비 2022년 일반대 외국인 유학생 수는 부산 104.9%, 서울 115.7% 증가
  - 2022년은 전년에 비해 유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완화로 유학생 입국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이 파악이 필요(한국대학신문, 2022.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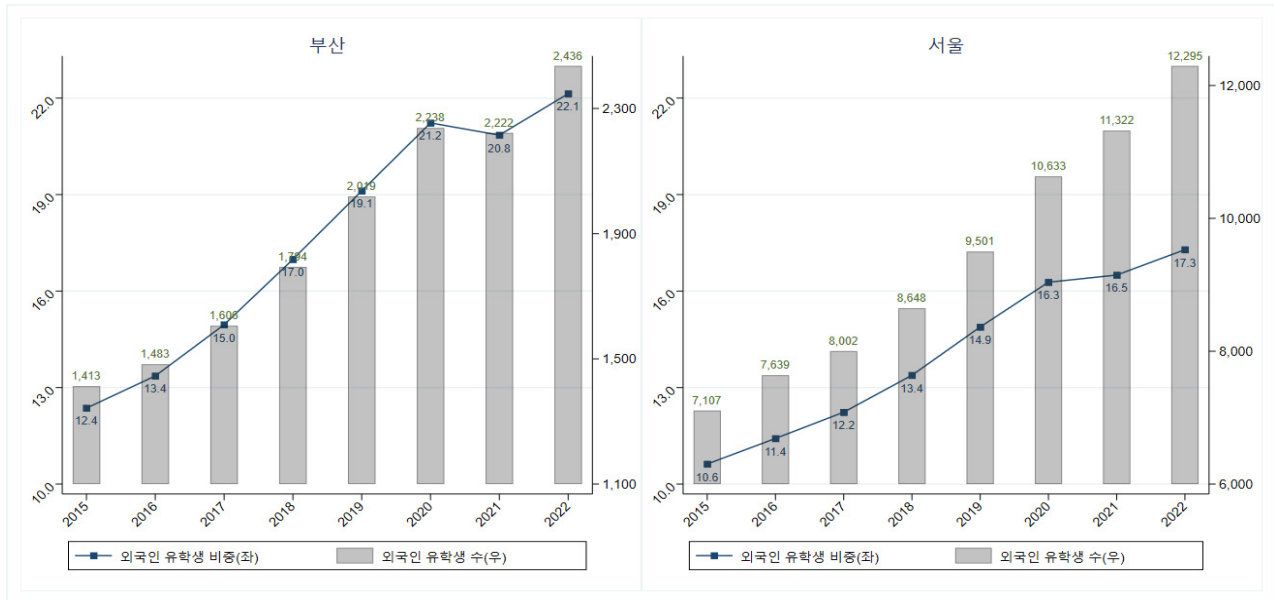
〈일반대 외국인 유학생 비중 추이〉



주: 외국인 유학생 비중(%)=(외국인 유학생 수/총 재적생)\*100.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수이며 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 해당연도 상반기(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부산 일반대학원의 경우 적은 내국인 재적생 수, 높은 유학생 비중으로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2015년 대비 2022년 일반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수는 부산 72.4%, 서울 73.0%로 증가하며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 일반대학원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부산 22.1%, 서울 17.3%
  - 이는 부산의 내국인 재적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유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부산 일반대학원의 낮은 신입생 총원율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 이 같은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1)개발도상국(특히 중국)의 대학교육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 2)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3)한류 열풍, 4)베트남 등 아세안 유학생 증가, 5)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집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강은영 외, 2021; 김성은·이교일, 2019; 민숙원 외, 2020)

〈일반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비중 추이〉



주: 외국인 유학생 비중(%)=(외국인 유학생 수/총 재적생)\*100.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수이며 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 해당연도 상반기(4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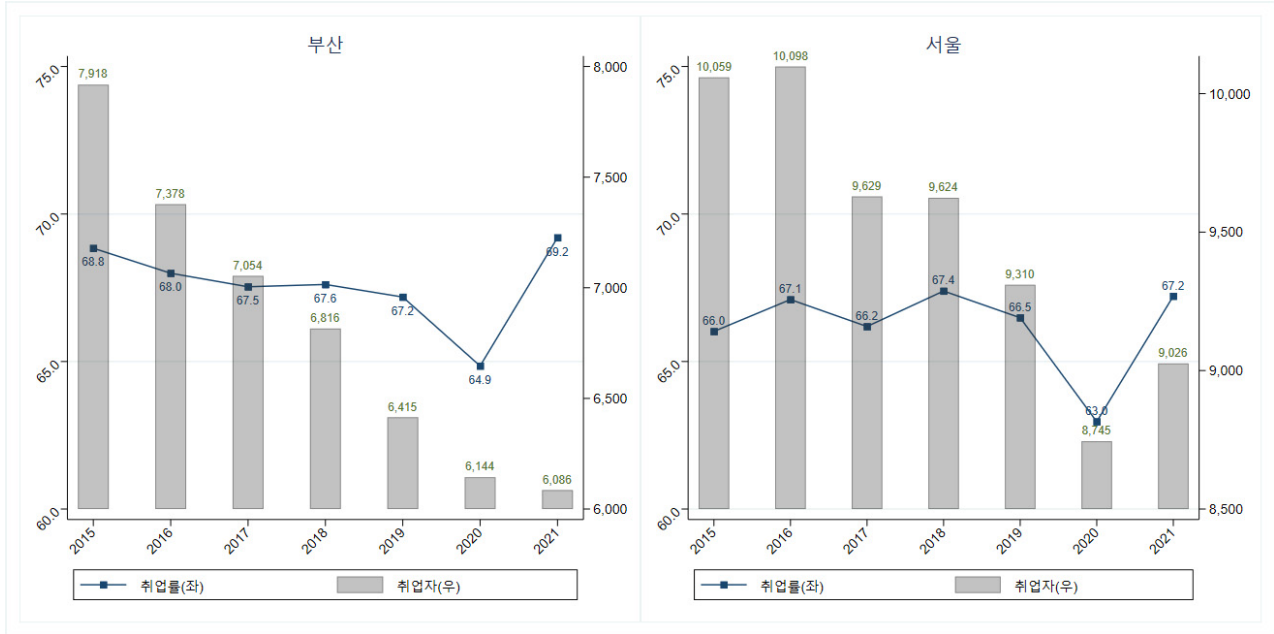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4 학제별 졸업생 취업률 및 취업자 추이

- 부산의 전문대 취업률 추이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
  - 부산의 2015~2021년 전문대 취업률은 64.9~69.2%로 서울의 63.0~67.2%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
- 2021년 부산의 전문대 취업률은 17개 시·도 중 16위로 2015년에 비해 3계단 하락
  - 17개 시·도 중 부산의 전문대 취업률은 2015년 13위에서 2021년 16위로 하락(서울은 16→ 17위)
- 특히 부산 전문대의 낮은 취업률은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의 취업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계열의 노동 수요 및 공급의 불일치(미스매치)가 있음을 시사
  - 2021년 기준 전국과 부산의 전체 졸업자 대비 계열별 졸업자 비중은 유사했으나, 계열별 취업률은 전국과 차이를 보였고 특히 부산 전문대의 사회(-4.2%p), 자연(-4.3%p), 예체능(-5.2%p)계열의 취업률이 낮음
    - 2021년 부산 전문대 계열별 취업률 순위는 교육(80.6%), 의약(80.2%), 공학(68.4%), 인문(63.6%), 예체능(62.5%), 자연(62.2%), 사회(61.4%) 순
  - 취업에 특수성이 존재하는 예술계 전문대학이 부산에 존재하는 것도 낮은 취업률 요인의 하나
- 반면 서울 전문대의 낮은 취업률은 졸업자의 계열별 비중 차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 2021년 기준 평균 취업률이 높은 의약계열 졸업자의 비중이 전체 졸업자의 5.5%로 전국 의약계열 평균 비중인 19.2%에 비해 매우 낮음

- 평균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 졸업자 비중이 8.6%로 전국 인문계열 비중인 2.5%에 비해 높음

〈전문대 취업률 추이〉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취업자는 조사기준일(해당연도 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뜻함. 졸업자는 해당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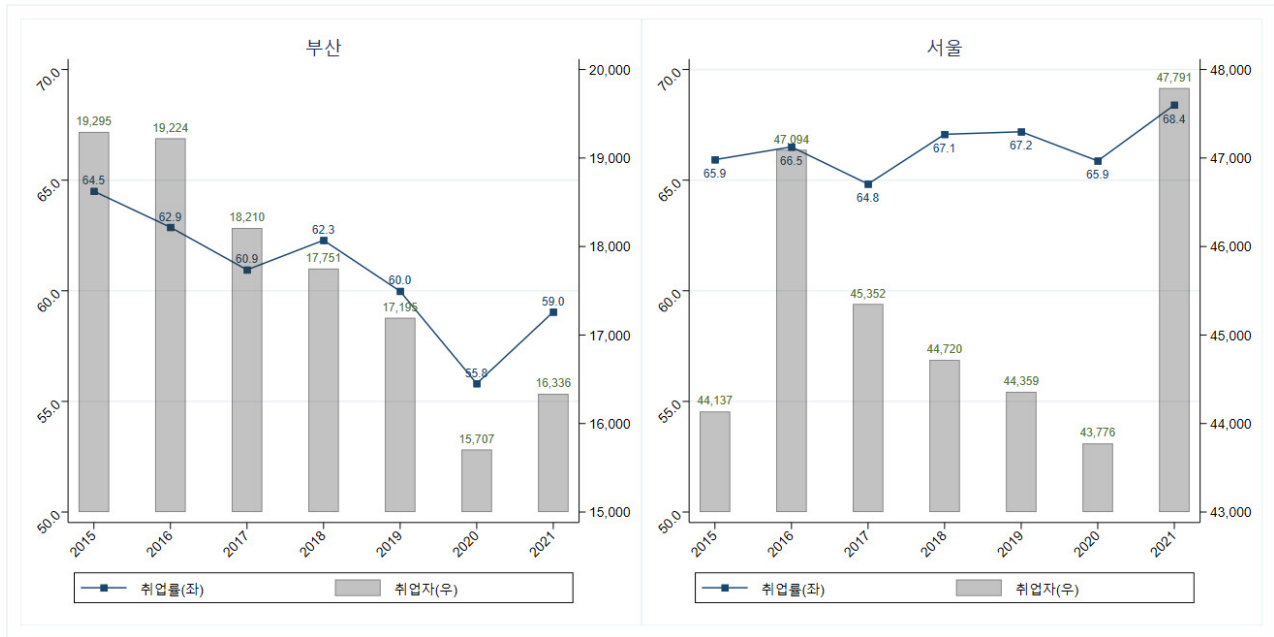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부산의 일반대 취업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서울의 일반대 취업률은 증가 추세이며, 2021년 부산의 일반대 취업률은 17개 시·도 중 14위로 2015년에 비해 6계단 큰 폭 하락

  - 부산 일반대 취업률은 서울에 비해 절대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서울은 증가, 부산은 감소하며 2015년 이후 그 격차가 지속 확대
  - 17개 시·도 중 부산의 일반대 취업률은 2015년 8위에서 2021년 14위로 6계단 하락한 반면 서울은 5위에서 2위로 3계단 상승
- 2021년 기준 부산 일반대의 계열별 취업률은 모든 계열에서 서울보다 저조했는데, 이는 기업의 수도권 대학 졸업자 선호(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부산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 지역 경기침체(이상업, 2022) 등이 원인으로 꼽힘

  - 부산과 서울 일반대의 계열별 취업률 격차는 공학(-12.6%p), 인문(-12.3%p), 자연(-11.5%p), 사회(-10.9%p), 예체능(-5.9%p), 의약(-5.5%p), 교육(-1.7%p)으로 나타남
- 2021년에는 부산과 서울 일반대의 취업자가 모두 증가하며 취업률이 전년대비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영향으로 보임(한국노동연구원, 2021)

〈일반대 취업률 추이〉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취업자는 조사기준일(해당연도 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뜻함. 졸업자는 해당 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 III 지자체 주도 대학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 1 부산지역 대학 입학 및 취업 현황의 시사점

- 대학 입학자원의 추세적 하락에 대비
  -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부산은 특히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
- 최근 증가하는 일반대학원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
  - 향후 부산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신산업의 고학력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홍보, 장학제도, 산학협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급인력 양성 대책이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정책이 필요



-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부산지역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의 인력 공급,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 지역 현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산지역 대학 취업률의 감소 추세 전환이 시급

- 취업률 증가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서비스 지원, 취업률이 낮은 전공 계열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등이 필요

## 2 지자체 주도 대학 인재양성 방향

### 1. RISE 시행에서의 '부산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필요

- 2025년 지자체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의 대학 및 산업 특성, 미래 발전전략에 맞춰 적절히 수정하고 확장한 '부산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
  -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HiVE(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LINC 3.0(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장해 지역 주도의 대학 인재양성 방향 설정에 활용할 필요

#### 1) RIS: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지역 내 교육 및 노동공급 시스템을 구축

- 2023년 RIS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일반대학의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체계를 완성해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내 노동공급 시스템을 구축
- 이를 위해 부산의 미래 신산업 수요 및 대학계열별 강점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부산형 대학교육 혁신 모델 수립이 필요
- 지자체는 대학 졸업자의 지역특화산업 취업 연계를 위해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정주지원금 등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지자체는 기업, 대학과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이 필요(민숙원 외, 2022)
  - 예를 들어 지산학 연계를 통해 취업한 학생일지라도 실제 근무조건이 본인의 생각과 불일치할 경우 언제든지 조기 퇴사 및 이직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 2) HiVE: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공동 대응으로 전문대 수요가 있는 특화산업 발굴 및 RIS와 연계

-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의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관련 교육이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취업률 등 대학 경쟁력을 개선해 신입생 유치를 확대

-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부산시가 공동 대응해 전문대의 계열별 취업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된 특화산업 분야를 발굴
- 향후 RISE 시행 때는 RIS와 특화분야를 공유하고 교육체계도 지역혁신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RIS와 유기적 연계 또는 통합이 필요

### 3) LINC 3.0: LINC 3.0사업단과 지역혁신플랫폼(RIS)을 연계한 인재양성 교육거점기구 구축 및 지자체 역할 강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의 기술혁신 주도 역할과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부산권 13개 일반대 및 전문대학으로 구성된 LINC 3.0사업단과 부산테크노파크는 2022년 ‘파워반도체 인재양성 공유대학’ 업무협약을 맺고 파워반도체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이러한 공유대학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 중심의 RISE 시행에서는 LINC 3.0사업단과 지역혁신플랫폼을 연계해 지역특화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거점기구로 확대

### 4) LiFE: 지역특화산업 고졸 취업자의 일과 학업 병행을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재 부산의 LiFE 사업은 고졸자의 일반대학 진학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지역 전문대로 확장해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
- 특히 기존의 지원자격 중 하나인 ‘산업체 3년 이상 근무’를 ‘부산지역 산업체 근무’로 변경하는 등 지역산업 밀착형 종사자에게 대학 교육 우선권을 부여

### 5) 글로벌 대학: 글로벌 대학 사업을 통한 지역 거점 대학의 위상 강화

- 글로벌 대학 지원방안 설계 시 지역경제 여건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
- 거점 대학의 위상 강화 시 청년층 인구 유입, 외국인 유학생 증가, 대학 연구 역량 증가 등 많은 파급효과가 예상

## 2. 부산시 인재양성 사업과 RISE의 통합

- RISE와 협력: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부산시 인재양성 사업은 공통 부문이 많아 연계가 가능할 수 있으며, 향후 RISE 시행 때 이를 통합한 인재양성체계가 필요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지산학 협력을 위한 기반 확충, 지산학 연계를 통한 기술 혁신, 지역 맞춤형 대학·인재 육성 등을 추진(부산테크노파크, 2023) → RIS, HiVE, LINC 3.0 연계 등

-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사업: 지역 대학과 지자체 연계를 통해 대학혁신연구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동명대- 미래수송기기, 신라대- 반려동물산업) → RIS, LINC 3.0 연계 등
- 직업교육 혁신지구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부산의 전체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고졸인재 육성을 추진 → LiFE 연계 등

### 3. 고급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연계형 대학원 인재 양성

- 정부는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해 부산 주축 산업을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 저장 공급 시스템, 실버케어테크로, 미래 신산업을 파워반도체, 수소·저장운송으로 확정(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 이러한 소재, 에너지, 파워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대학원 인력과 같은 고급인재가 필수이며,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에서도 대학원 인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공유대학원 등을 이용한 지역 산업 맞춤형 대학원 인재 양성
  - 2022년 기준 동아대, 부산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대학원 등이 디지털융합, 스마트 생산, 경영컨설팅 등 첨단 융합학과 중심으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나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임(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 지자체는 지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조건형 대학원 계약학과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연계형 대학원 교육을 확대
  - 서울은 서울대 등 다수 대학원에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며, 특히 공학분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
  -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다수의 대학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공유대학원도 고려

### 4.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확대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자체 주도 외국인 유치 본격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확대 요청
  - 부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토대로 향후 취업 연계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 신규 유치 및 지역 정주 촉진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2023년 1~10월 시행, 비자 쿼터 110명, 인구감소지역(서구, 동구, 영도구)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비자(거주비자 F-2, 재외동포비자 F-4)를 미리 발급 → 부산지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해 취업과 연계
- 향후 RISE 시행 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제도 및 기숙사 확대 운영, 지역 산업으로의 취업 연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 지자체 주도 외국인 유치 및 지원 사업을 본격화
  - 부산은 최근 한국유학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유학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적이며 향후 RISE 체계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5.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와 대학이 대학생 창업 수요를 공동 지원해 지역 창업 역량을 제고
- 부산지역 대학에 산재한 창업지원단과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
- 지역 내 창업 시 컨설팅, 산업과 연계된 현장 교육, 투자 유치, 자금 지원, 창업 부지 제공 및 법·제도적 지원을 종합 제공하고 대학(원)생, 교직원 등 대학 관련 종사자의 창업 역량을 강화
  - 지자체와 대학 창업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향후 RISE와 통합을 고려

### 참고문헌

- 강경종, 김종우, 김종욱, 김선태, 주홍석, 홍은선,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 2022
- 강은영, 정재연, 채준원,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 제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산업&혁신 Brief, 2021
- 관계부처 합동,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
- 권오혁, 김종호, 서석흥, 이지웅,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대안”, 지역사회연구, 29(4), 2021
- 김성은, 이교일,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5), 2019
- 김시원, 김지은, “지역경제 격차 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학력 고급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고서, 2022
- 김지수, 변창욱, 최윤기, 배진원, 최준석, “지방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보고서, 2021
- 민숙원, 송창용, 윤혜준, 김혜정,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호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 2020
- 민숙원, 송창용, 주희정, 장광남, 임언, 최현식,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 2022
- 부산상공회의소, “2021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기획조사 보고서, 2022
-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2021
- 이상엽, “코로나19가 부산 청년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BDI 경제동향브리프 제24호, 2022
- 이종화,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경제논집, 55(2), 2016
- 장광남, 송창용, 최현식,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지방대학 박사의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 2022
- 한국노동연구원,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2021